

알렉산더의 헬라제국과 신구약 중간사

1.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전쟁

바벨론은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길고 메대 바사는 페르시아에 망하게 되죠.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원래 매우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도 없고 사치와 낭비도 찾아볼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페르시아는 메대와 바사를 통일하고 부유했던 리디아를 지배했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왕은 바벨론 제국까지 점령하여 대제국의 주인이 됩니다. 어떻게 가난했던 페르시아가 부유한 나라로 바뀌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포로귀환 정책때문입니다. 여려나라에 끌려왔던 포로들을 돌려보내고 지방경제를 활성화 시켜 많은 세금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도 이와 마찬가지였죠.

페르시아의 부흥을 가져왔던 고레스가 죽자 그의 아들 캄비세스가 페르시아의 두 번째 왕이됩니다. 7년 5개월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이집트 정복이라는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캄비세스는 젊은 나이에 죽게 됩니다. 그러자 페르시아는 7명의 후보 가운데 새 왕을 선출했는데 다리오가 선출되었습니다. 다리오는 왕이 되기 전에 총독을 맡아 나라를 다스리는 경험있었습니다. 그러나 왕족의 피를 이어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는 왕이 될 때 결혼한 상태였음에도 왕족의 정통성을 세우기 위해 고레스의 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들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 아들은 바로 에스더의 남편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아하수에로는 히브리식 표현이고, 페르시아식으로는 크세르크세스로 불리었습니다. 아하수에로는 왕이 되기 전부터 12년동안 아버지 다리오를 보좌하며 왕의 꿈을 키워갔습니다. 다리오에 이어 아하수에로가 왕이되고 페르시아 제국의 역사중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합니다. 동쪽으로는 파키스탄, 서쪽으로는 중앙아시아와 서아시아까지 지금의 미국과 맞먹을 정도로 컸습니다.

이러한 페르시아는 그리스를 차지하기 위해 애를 많이 썼습니다. 다리오 왕의 첫 번째 그리스 침공은 공격한 번 해보지 못하고 심한 폭풍으로 300여척의 배가 침몰하고 돌아옵니다. 다시 다리오왕은 그리스를 침공하는데요, 이 두 번째 침공은 유명한 마라톤 전투입니다. 그리스 병사가 그리스의 승리를 알리기 위해 전투장소에서 아테네까지 달려갔던 것이죠. 다리오 왕은 결국 죽고 아버지를 이어 아하수에로가 왕이 됩니다. 혹시 세계 4대 해전을 아시나요? 이중에는 임진왜란때 왜군을 크게 이긴 한산도 대첩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아하수에로가 그리스를 침공한 살라미스해전이 세계 4대 해전에 속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46개의 나라에서 군대를 모아 1,207척의 전함과 50개나되는 특별선박들을 이끌고 그리스를 침공합니다. 하지만 또 그리스 군에게 패하고 말죠. 아하수에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아있는 지상군으로 그리스를 침공합니다. 그러나 굴욕적인 패배만 남기고 돌아옵니다. 이 역사적 전쟁을 배경으로 만든 영화가 있는데요. 바로 300이라는 영화입니다. 아하수에로는 4년간 그리스 원정을 마치고 돌아온 후 7년이 지나 에스더를 왕비로 맞이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1차 사건과 2차 귀환사이에 에스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러나 아하수에로는 즉위한지 20년째에 자신의 친위대장에게 암살되어 죽습니다. 그 후 그의 아들 아드사스다가 왕이 되는데 이때 느헤미야를 통해 3차 포로귀환이 이루어집니다.

2. 그리스 도시 국가들의 전쟁

그리스는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비롯한 여러 도시국가들이 모여 연합을 이루었는데요. 이들은 세 차례에 걸친 페르시아의 침공에도 불구하고 뭉쳐 연합을 통해 놀라운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이들은 언제라도 페르시아군이 쳐들어올 수 있으니 재침공에 대비하여 기금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아테네가 이 기금을 사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자신들의 신전을 걸립하는데 사용한 것이죠. 강력한 해군으로 살라미스 해전의 주역이었던 아테네의 입김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아테네는 페르시아로부터 그리스를 보호해 주기 때문에 기금은 어떻게

싸도 된다는 억지 논리를 펼쳤습니다. 그러면서 동맹국들이 비난하기 시작했고 연합은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아테네는 그리스 도시국가 중 가장 큰 항구도시인 고린도를 지배하려 했습니다. 그러자 스파르타를 비롯한 도시 국가들이 마침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 전쟁을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 부릅니다. 이 전쟁은 총 3단계로 이루어 지는데요.

먼저 1단계는 스파르타의 아테네 침공입니다. 아테네는 페리클레스의 지휘 아래 스파르타의 침공에 굳게 방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테네 시내에 전염병이 돌니다. 페리클레시스 뿐만 아니라 많은 아테네 시민이 죽게 되죠. 페리클레시스도 죽자 아테네는 혼란에 빠지고 결국 1차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스파르타가 승리하게 됩니다. 2단계에서는 스파르타와 아테네가 휴전 협정을 맺고 전쟁 이전의 상태로 회복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아테네가 시칠리아 도시의 내전에 개입하고 원정군을 보냄으로 다시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전쟁에서는 스파르타가 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아테네와 싸우느라 적이었던 페르시아를 끌어들이게 된 것이죠. 그들의 도움으로 스파르타는 아테네의 성을 파괴했으며 해군이 막강했던 아테네의 모든 함대를 빼앗습니다. 이때부터 그리스는 해전에서 약세를 보이게 됩니다. 27년의 내전은 끝이 나고 서로 상처만 남긴 소모전이었습니다. 이후 그리스는 알렉산더에게 처참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계의 역사는 페르시아와 그리스가 아닌 알렉산더가 이끄는 헬라제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3. 알렉산더의 헬라제국 - 융합을 중심으로

알렉산더는 페르시아로 진격하여 페르시아 다리오 3세와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그러나 이 전투에서 다리오 3세는 도망하여 목숨을 건져냅니다. 그러자 알렉산더는 다리오 왕을 추격하다 멈추고 이집트로 진격합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시돈과 비블로스, 아라우스는 알렉산더에게 사절단을 보냅니다. 그리고 항복을 전하면서 황금 왕관을 바치죠. 그런데 두로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알렉산더가 두로에 사절단을 보냈는데 모두 바다에 던져 죽게 한 것입니다. 두로는 대단한 과거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앗수르의 산해립의 공격을 5년이나 버텨냈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포위에도 무려 13년간 버텼습니다. 왜냐하면 두로는 자신들의 식민지인 카르타고가 곧 원정군을 보내줄거라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두로는 끝까지 버티며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끈질긴 두로 앞에 알렉산더가 포기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두로가 섬이었기에 육지에서부터 섬까지 방파제를 쌓았구요, 가장 취약한 항구를 공격하여 결국 두로를 점령합니다. 그 당시 알렉산더는 매우 잔인하기로 소문이 났었는데요, 어느 역사학자는 알렉산더가 두로 백성 8천명을 살육하고 3만명의 사람들을 노예로 팔아넘겼다고 이야기 합니다. 노예 무역으로 큰 부를 누리고 스스로를 신이라 부르며 교만했던 두로가 아모스, 이사야, 에스겔의 선지자 말대로 마침내 멸망하였습니다.

그런데 두로 뿐만 아니라 아라비아 무역의 중심지인 가사도 2개월동안 저항하였습니다. 여기서 알렉산더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가사도 알렉산더에게 정복을 당합니다. 가사의 남자들은 학살당했고 여자들과 아이들은 두로와 마찬가지로 노예로 팔려나갔습니다.

알렉산더는 생각지도 않게 두로에서 6개월, 가사에서 2개월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후 시리아와 유대, 이집트를 점령하고 페르시아 제국을 단숨에 점령하죠. 이제 '황금의 제국'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알렉산더는 많은 보물을 거두어 들였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는 70개 이상의 알렉산드리아를 건설하면서 헬레니즘을 퍼트리기 시작했습니다. 헬레니즘은 "그리스인처럼 행동하다"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는데요. 그리스 고유의 문화와 오리엔트 문화가 만나면서 예술, 사상, 정신을 매우 중요시 여겼습니다. 알렉산더는 자신뿐만 아니라 부하들에게 까지도 페르시아 여인들과 결혼하게 하여 헬라 제국의 범위를 넓힙니다. 이것은 앗수르 제국의 혼혈정책과는 정반대되는 것이었죠. 앗수르는 어떤 정책을 펼쳤나요? 자신들의 혈통은 유지하면서 지배하는 민족들이 혼혈민족이 되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럽인인 알렉산더가 동양의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면서 동서양의 융합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헬라어라는 국제 공용어를 사용하여 언어를 통일하려 했습니다.

4. 알렉산더와 아리스토텔레스

헬라제국을 세운 알렉산더는 잔인한 정복자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리스의 사상과 문화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알렉산더는 애굽을 점령했을 때 자신의 이름을 딴 도시 알렉산드리아를 만들고, 그곳에 가장 큰 도서관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또한 역사 기록에 보면 알렉산더는 전쟁 중에도 밤마다 독서를 했고 그의 베개 밑에는 늘 책이 있었습니다. 후대에 나폴레옹도 알렉산더의 이러한 모습이 좋아보였던지 따라 할 정도였습니다. 알렉산더는 왜 이렇게 독서를 하고 도서관을 세우는 일들을 하였을까요? 아마도 그의 어린 시절 아리스토 텔레스의 영향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렉산더의 아버지에게는 여러 자녀들이 있었는데 그 중 유일하게 남자아이인 알렉산더를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가정교사를 불러와 알렉산더를 교육시킵니다. 그 가정교사가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였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알렉산더에게 도덕이나 교리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 공개하지 않는 심오한 가르침을 다 알려주었습니다. 덕분에 청소년 시절 알렉산더는 스승의 가르침을 통해 그리스의 문화를 존중하게 되었고 매우 높은 지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는 정복자의 모습도 있었지만 철학적인 면모도 보여준 인물입니다.

5.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와 유대

애굽을 거쳐 페르시아 전체를 정복하게 된 알렉산더는 헬레니즘을 확산시키며 인도의 갠지스강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그런데 부하들이 더 이상 따라가길 거부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쩔 수 없이 다시 돌아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알렉산더는 32세의 젊은 나이에 원인모를 병으로 죽고 맙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라리아 때문에 죽었다 말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차가운 물에 목욕하고 난후 열병에 의해 죽었다 말하지만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알렉산더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헬레니즘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알렉산더를 이를 상속자가 없었기 때문이죠. 알렉산더가 죽은 후 아내 아들을 출산했지만 부하 장수들의 권력다툼 속에 아들은 살해됩니다. 타툼이 심해지고 결국 헬라 제국을은 여러 왕조로 나뉘게 되죠.

먼저 장군 라고스의 아들 프톨레마이오스는 지리적으로 접근하기 어렵고 부유했던 애굽을 차지했습니다. 44세의 나이에 애굽에 도착해 능숙한 솜씨로 애굽을 손에 넣고 알렉산드리아를 수도로 정합니다. 그리고 알렉산더의 시신을 조심스럽게 애굽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프톨레마이오스 소테르라 계명합니다. 소테르란 구원자라는 뜻인데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클레오파트라 여왕까지 무려 300년간 이어졌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북쪽의 셀루카스 왕조와 유대지역을 두고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때 프톨레마이오스는 잔꾀를 발휘하여 유대지역을 손에 넣고 맙니다. 프톨레마이오스 소테르는 유대의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면서 마치 안식일에 제사를 드리러 온 것처럼 위장하였습니다.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처럼 보였기여 프톨레마이오스 소테르의 음모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안심하고 있던 예루살렘을 치고 유대 온 지역을 다스리게 되었죠.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유대지역을 무려 122년간 다스렸습니다. 그들은 대체적으로 문화한 통치자들이 다스리게 됨으로 유대는 평화와 안정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로인해 유대의 '대제사장'들은 정치와 종교의 지도자로 계속 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들은 당시 떠오르는 주요 인물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 전까지는 예루살렘 성전과 대제사장 율법 중심이었고, 포로기간 70년에는 회당과 서기관, 율법 중심이었습니다. 포로에서 귀환 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면서 대제사장은 다시 유대의 핵심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유대는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에서 헬라 제국의 지배로 바뀌었음에도 세금을 거두는 나라가 바뀌었을 뿐 바벨론 포로기와 달리 자신들의 종교와 문화 전통을 지키며 살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알렉산더의 뜻을 따라 오직 세금을 걷는 일에만 신경을 썼기 때문이죠. 그러나 헬라 제국의 정책에 따라 헬라어를 사용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6. 헬라어 **70인역(LXX)** - 구약성경의 세계화

프톨레마이오스 소테르가 40년간 통치한 후 죽자 그의 아들 프톨레마이오스 필라델포스가 40년간 통치하게 됩니다. 당시 애굽의 수도는 알렉산드리아였는데 100만명의 인구가 사는 세계적인 도시였습니다. 이는 로마의 인구와 비슷했죠. 문화와 패션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지리학자로 유명한 스트라보는 알렉산드리아를 일컬어 “인간 세계의 가장 거대한 백화점”이라 불렀습니다. 당시 알렉산드리아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더 이상 하브리어를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어 중 하나인 ‘코티네’가 헬레니즘 세계의 공용어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리스 상인들은 코이네로 거래를 했구요, 코이네로 법이 공포되었으며, 코이네를 통해 모든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이네는 외교가와 문필가의 언어였기 때문에 당시 존경받거나 인정을 받으려면 꼭 코이네를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벽에 새겨진 낙서도 모두 코이네로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도 하브리어 성경을 사용할 수 없었죠.

알렉산더가 세웠던 도서관은 20만권의 책들이 있었으며 많은 학자들이 방문하였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 필라델포스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을 더 발전시키길 원했습니다. 당시 도서관장인 파레리우스는 20권의 책에서 50만권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한 파레리우스에게 프톨레마이오스 필라델포스는 이렇게 말을 남겼습니다.

“내 도서관에 꼭 있어야 할 책들 가운데 탐구해볼 만한 유대인의 율법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소. 그 책들은 유대인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헬라어로 번역하기에 매우 힘들다고 들었소. 그 문자는 수리아의 고유 문자와 비슷하며 발음도 비슷한 것처럼 보이나 나름대로 독특한 면이 있다하오. 그러나 우리가 그 책들을 번역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생각하오. 그 책들이 우리 도서관에도 있으니 번역하는데 필요한 것은 다 갖추지 않았소?”

이 때 마침 프톨레마이오스 필라델포스의 친구 가운데 아리스테아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 율법서를 헬라어로 번역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듣고, 오랫동안 마음에 담아뒀던 것을 왕에게 말합니다. 그것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해방시켜주자는 생각이었습니다.

아리스테아스는 왕에게 유대의 율법을 번역하는 이 시기에 수많은 유대인들을 노예로 남겨두는 일은 옳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왕은 이를 허락하죠. 애굽에는 바벨론 포로기 전부터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고 바벨론 포로기 때 총독 그달리야를 죽이고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프톨레마이오스 소테르 때에 전쟁의 포로 또는 자발적으로 애굽으로 내려간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 필라델포스는 자신의 친구의 조언을 받아들여 국고에서 460달란트 이상을 내어주고 유대인들을 모두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유대인 노예들이 해방하라는 명령에 7일 만에 모두 시행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애굽으로 내려갔던 후손들이 드디어 300년 만에 다시 유대 땅을 밟게 된 것입니다.

노예를 해방해주고 난 뒤 생각해보니깐 하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할 수 있는 율법학자가 없었습니다. 하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기 위해서는 세 분야에 탁월한 능력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첫째는 하브리어에 능통해야 합니다. 하브리어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 특별하게 교육받은 사람들이 아니면 독해하기 매우 어려운 언어였습니다. 번역하기 위해서는 하브리어를 능숙하게 다루어야만 했죠. 둘째는 헬라어에 능통해야 합니다.

헬라어로 번역해야 하기에 헬라어에 능통한다는 것은 당연한 조건이 되겠죠. 마지막 셋째는 신학에 능통해야 합니다. 물리학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영어사전을 찾아가면서 번역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물리학자가 번역한 것을 본다면 그 내용을 이해하기란 어렵겠죠.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려면 이와 같이 히브리어, 헬라어, 신학에 탁월한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도서관장은 왕에게 유대에서 율법에 정통한 학자를 데려오자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필라델포스는 유대의 대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유대 노예들을 해방시키는 일과 율법에 정통한 자들을 보내달라고 서신을 씁니다. 그리고 큰 수반과 대접들, 잔을 만들 금 50달란트와 수많은 보석들을 보냅니다.

그러자 엘르아살은 열두지파에서 각각 6명씩 총 70~72명을 선발하여 알렉산드리아로 보내 모세오경부터 번역하기 시작하였습니다. 70명이 번역하였다고 하여 후대에 셉투아진트, 70인역이라 불렀습니다. 70인역이 완성되자 프톨레미 필라델포스는 크게 기뻐하며 성경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장에서 70인역 사본을 도서관에 소장해 두고 손상되지 않도록 각별히 소중히 여기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번역을 마친 율법학자들에게 최고급 옷 3벌과 금 2달란트와 같은 수많은 선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엘르아살에게도 수많은 선물을 보냈죠.

7. 셀류커스 왕조와 유대

알렉산더가 죽은 후 많은 왕조로 나누어졌었는데 그중 하나가 셀류커스가 세운 왕조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와 싸우며 유대지역을 차지하려 했습니다. 셀류커스 왕조의 안티오크스 3세는 어느 때보다도 자신의 왕조가 시작된 이래 넓은 영토와 부를 얻게 되었습니다. 카르타고의 군사지도자이자 명장인 한니발까지 자신의 나라로 망명 와 있었기 때문에 여려면에서 상승세를 탔습니다. 그렇기에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를 무찌르고 유대를 차지할 수 있다 생각했죠.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와 셀류커스 왕조가 서로 싸우자 유대는 재빨리 셀류커스의 편에 서며 안티오크스 3세를 도와 프톨레마이오스 군대를 몰아냅니다. 그러자 안티오크스 3세는 감동을 받아 유대인들의 신앙과 율법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겠다 약속하며 3년간 세금감면의 혜택을 베풀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에게 도시와 성전 재건을 지원해주고 유대인 포로들까지 풀어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유대 공동체의 권위를 인정해 주어 자체적으로 정치를 해나갈 수 있도록 했으며 예루살렘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세금을 면제해줬습니다. 마치 알렉산더가 베풀었던 선례를 따르려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대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에서 셀류커스 왕조의 지배를 받게 되었지만 그들의 삶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안티오크스 3세가 로마와의 전쟁에서 두번이나 연속 패하면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안티오크스 3세는 로마에 많은 땅을 빼앗겼고, 해군을 해체해야 했으며, 전쟁에 대한 책임으로 배상금 1만 5천 달란트를 물어줘야 했기 때문이죠. 이 액수는 고대 나라에 징수된 배상금 가운데 손꼽힐 정도로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안티오크스 3세는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를 어떻게 해결하려 했을까요? 그는 로마에 배상금을 주기 위해 자기 나라 모든 신전들의 재산을 압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속국인 예루살렘 성전도 마찬가지였죠. 그러자 나라 곳곳에서 반기를 들었고, 결국 안티오크스 3세는 수사라는 곳에서 신전을 약탈한 뒤 암살당하고 맙니다. 안티오크스 3세의 뒤를 이어 셀류쿠스 4세가 왕이 되었습니다. 4세는 로마에 바쳐야하는 배상금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을 강탈하려 했습니다. 그러자 유대에서 반대가 심하게 일어났고 그도 암살당하고 맙니다. 셀류커스 4세의 뒤를 이어 그의 동생 안티오크스 4세가 왕이 됩니다. 그는 돈을 받고 자신의 마음대로 ‘야손’이라는 사람을 유대의 대제사장으로 임명합니다. 이전까지 유대의 대제사장은 항상 아론의 후손들이 맡았고,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는 사독

가문만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바벨론과 페르시아를 거쳐 헬라의 지배를 받는 상황에서도 지켰던 전통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성직을 사고 팔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대제사장은 종교인에서 권력을 가진 정치인이 됩니다. 야손이 대제사장 자리에 있을 때, 메넬라우스라는 사람이 더 많은 돈을 주고 대제사장 자리에 오른 일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직의 매매는 로마에 의해 예루살렘에 망할 때까지 지속되었습니다.

안티오코스 4세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다스리는 애굽 지역을 뺏고 싶어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번 애굽에 선전포고를 한 후 침략하였습니다. 대군을 거느리고 펠루시움이라는 곳을 공격하여 애굽을 장악하기 시작했죠. 안티오코스 4세는 멤피스라는 곳을 진격하여 함락시키고 이제 수도인 알렉산드리아를 장악하려 했습니다. 그러자 애굽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로마에 원정을 요청합니다. 로마의 밀사 포필리우스 레나스는 안티오코스 4세에게 애굽에서 철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제대로 힘을 써보지 못하고 안티오코스 4세는 로마의 힘에 밀려 퇴각하였습니다.

안티오코스 4세는 화가 났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애굽을 다 차지할 수 있었는데 로마 때문에 망치게 되었으니까요. 퇴각을 하던 중 유대 땅에 분풀이를 합니다. 안티오코스 4세는 예루살렘에 ‘아쿠라’라는 요새를 세워놓고 예루살렘 성전을 통제하여 유대인들을 괴롭힙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무력으로 강탈하고, 불자르고, 성전을 늑탈하며 율법서를 찢고 많은 유대백성들을 학살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개인의 머리마다 내는 인두세와 성전에 바치는 세금인 성전세와 같이 많은 종류의 세금을 부과시켰습니다. 또한 율법에 따라 살지 못하게 하는 법령을 내립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말고 어린 사내 아이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며, 율법서를 가져서는 안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종성한다는 것은 셀류커스 왕조에 대한 반역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이에 할례를 행한 부모들의 아기를 죽여 부모들의 목에 두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십자가에 매달게 했죠. 참으로 처참한 광경이었습니다. 안티오코스 4세의 박해는 계속 심해져 갔는데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제우스 신을 위한 제단과 우상을 세워놓고, 유대인들이 경건하지 못하게 여기는 돼지를 희생제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반대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안티오코스 4세는 반항적인 유대인들을 가려내려 한 가지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것을 이용하였습니다. 거리에 나온 사람들에게 강제로 돼지고기를 먹게 만들었습니다. 먹으면 통과시키고 먹지 않으면 그 자리에 죽였습니다.

이에 반대하여 하시딤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시딤은 히브리어로 ‘자비’라는 뜻인데요, 세속적이고 종교에 무관심한 동포들과 구분된 경건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율법을 탐구하고 주야로 묵상하기로 작정한 서기관들이었죠. 그들은 안티오코스 4세의 탄압이 자신들의 죄악으로부터 왔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진노를 푸시고 구원을 내려주시도록 율법을 준수할 것을 결심합니다. 여러분 박물관에 가보신 적 있으시지요? 박물관에 가면 전시물을 아무렇게 두지 않습니다. 함부로 만져 상하지 않도록 유타리를 치거나 유리관에 보관하죠. 이들도 율법을 보호하기 위해 유타리를 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율법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안식일의 시간을 앞당겨서 지켰습니다.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에 해가 지는 순간 시작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바쁘다 보니 미처 깨닫지 못하고 해가 넘어가는데도 일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일을 정리하는 시간 만큼 안식일을 어긴 것이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안식일을 해가 질 때가 아니라 해가 지기 몇 분 전에 시작하도록 정했습니다. 예를 들면 해가 뒷산 언덕 아래로 해가 넘어갈 때가 아니라 뒷산 나무 꼭대기에 달았을 때 안식일의 시작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혹시 해가 나무 꼭대기 밑에 내려올 때까지 일을 하더라도 사람이 만든 법은 어긴 것 있지만 하나님의 원래 법은 범한 것이 아니게 되죠. 유타리를 통해 율법을 보호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시딤 운동에 참여한 수많은 사람들은 안티오코스 4세에 의해 무참하게 살해되어 수많은 순교자들이 생겼습니다. 심지어 한 자리에서 천명이 살해당하기도 했습니다.

8. 강의를 정리하며

우리는 역사의 흐름에 따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유대는 여러 나라들의 지배를 받았지만 종교와 문화 전통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를 통하여 어려웠던 히브리어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되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성경의 세계화라는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었죠. 또한 애굽에 포로로 있던 유대인들이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어두운 면도 있었습니다. 셀류커스 왕조의 지배를 받을 때 대제사장을 돈으로 주고 받는 성직 매매도 있었고, 안티오크스 4세의 엄청난 핍박도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신앙을 재점검하고 다시 돌아오길 바라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는 하시딤운동을 펼치게 되죠. 하지만 계속 탄압은 심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과연 여기서 끝나는 것일까요? 계속되는 탄압 속에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그 이야기는 다음 3강 시간에 계속 살펴보겠습니다.